

“권력자는 곧 살아남는 자”

〈군중과 권력〉 엘리이스 카네티 지음 | 강두식·박병덕 옮김 | 바다출판사 | 660쪽 | 값 28,000원

“인간은 자신의 신을 창조한 것이다.
인간은 신을 사로잡아
신이 입었던 파멸과 공포의 갈옷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1922년 독일 외상 라테나우는 독일과 소련 양국의 관계정상화와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유대인이었다는 이유가 보태져 우익 국수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독일 노동자들이 벌인 시위현장에서 엘리이스 카네티는 개인이 군중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느낌을 주는지에 대한 강렬한 체험을 한다.

이 사건 이후 카네티는 군중을 연구해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의 나이 스무 살 때였다. 그리고 군중에 대한 연구는 곧 권력에 대한 연구로 이어진다. 군중과 권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둘 중 하나가 결핍되면 나머지 하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군중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카네티의 이 독특하고 문

학적인 역작은 1960년에 출간되었고, 역사상의 모든 군중에 대한 자료에서부터 원시문화에서 동서양의 고대문화, 신화, 철학, 자연과학, 인류학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방대한 책이다.

30여 년에 걸쳐 카네티가 이 책에 몰두했던 바탕에는 남다른 성장배경과 그가 살았던 시대가 있다.

카네티는 1905년생으로 20세기 전반 두 번의 광기어린 세계전쟁을 겪었으며, 스페인계 유대인의 후손이었다. 히틀러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학살이 남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는 빈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해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평생 동안 문학과 철학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고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등으로 옮겨다니며 살았던 세계시민이었다.

인간이 군중을 필요로 하는 이유

카네티는 인간이 군중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접촉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개개인의 차이가 사라진 평등화된 군중 속에 있을 때 안도감을 느끼고, 이 때문에 군중을 형성한다. 그는 이렇게 모든 개개인의 차이가 제거되고 군중이 되는 것은 ‘방전放電’ 현상 때문이라고 말한다.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계급, 신분, 재산 등의 차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 방전(혹은 폭발)의 순간에 개별적 군중의 구성원들은 서로간의 차이를 제거하고 비로소 군중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전의 순간은 환상일 뿐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군중 속에서 사람들은 평등하다고 느끼지만 현실에서 실제로 평등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카네티는 군중의 특성을, 언제나 성장하기를 원한다. 군중 내부는 평등이 지배한다. 밀집 상태를 사랑한다.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하나의 방향을 필

요로 한다는 네 가지로 크게 파악했다. 이러한 군중의 특징은 인간의 정자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난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정자는 하나이지만 애초에 난세포를 향해 출발한 정자는 2억 개나 된다. 이들 모두 한 번의 사정에 의해 분출되어 한꺼번에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움직인다. 이 엄청난 숫자의 정자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모두가 평등하다. 그리고 모두 난세포를 향하여 움직인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군중의 특징과 같은 것이다. 난세포에 들어간 하나의 정자는 살아남은 자라고 불릴 수 있으며 이 정자는 다른 정자들의 지도자라고 불릴 수도 있다. 즉, “모든 인간은 2억 마리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정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의지하고 있다”는 말이 성립한다.

이처럼 권력의 정점은 살아남은 순간에 느낄 수 있다. 죽음을 목격하며 느꼈던 공포감이 자신은 살아남았다는 만족감으로 바뀌며, 이 순간 권력은 “다른 무엇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유일한 인간이라고 느끼는 그의 유일한 의식에서 연유한다.”

호전성을 가졌을 거라고는 판단되지 않는 플루타르크도 카이사르가 “3백만 명의 적과 싸워 1백만 명을 죽였고 또 다른 1백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는 기록을 했다는 것을 예로 들며, 전쟁터의 사령관은 그가 얻은 승리의 의의를 전사자들의 숫자로서 측정한다는 일반적인 시각이 플루타르크에게서도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권력자는 승리한 전쟁에서 자신에게 맞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속한다고 파악했으며, 이는 전투를 기록한 역사적 문헌에서 관례적으로 내려왔다. 역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살아남는 “기술이 탁월한” 호전적 영웅들에게 관대하며 그들의 명성은 승리나 패배보다 그들에 의해 희생된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검의 연회Leichenbankett’

권력자의 결정적 특징 중 하나는 그가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룻밤 내내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떨게 한 후 집으로 돌려보내는 ‘주검의 연회Leichenbankett’를 했다. 황제는 자신이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자신의 권력을 강력한 느낌으로 표현하는 이 놀이를 여러 차례 만끽했다고 한다. 살아남는 것을 권력자는 자신만의 특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갖고 하는 놀이까지 고안해 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권력자에게 ‘관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카네티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는 권력자가 때때로 사면령을 내리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사형집행 직전에 사면령을 내리며 권력자는 죽은 자는 되살릴 수 없다는 권력의 한계를 초월한 것처럼 생각한다.

권력에 대한 카네티의 설명을 하나 더 들어보자. 고양이가 쥐를 죽일 때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 때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어느 정도 도망치게 내버려두기도 하는데, 이 순간에도 쥐는 고양이의 영향력 아래 있다. 고양이에겐 잡힐 수 있는 테두리를 벗어나기 전까지 쥐는 고양이의 수중에 있다.

“고양이가 지배하는 공간, 고양이가 쥐에게 허용하는 희망의 순간들, 그러나 잠시도 눈을 떠도 돌리지 않는 면밀한 감시와 해이해지지 않는 관심, 그리고 쥐를 죽이려는 생각. 이것을 모두 합친 것, 다시 말하면 공간, 희망, 빈틈이 없는 감시와 파괴적인 의도를 권력의 실체, 좀더 단순히 말하면 권력 그 자체라고 부를 수 있다.”

카네티는 또한 인간의 서기, 앉기, 눕기 등 여러 가지 자세와 권력을 결부시키기도 하며 지휘자를 등장시켜 권력을 설명하기도 한다. 권력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들일지라도 지휘자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면 권력의 특질을 발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단 지휘자는 청중들은 모두 앉아 있는 반면 혼자 서 있다. 자신의 동작으로 여러 악기에 생명을 불어넣기도 하고 침묵시키기도 한다. 즉,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1960년에 출간된 이 책을 통해 카네티가 던졌던 ‘권력자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이 실행되는 것인가’라는 물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신의 파괴력을 능가하는 ‘지상의’ 권력자들을 제어하기 위해, “우리는 공공연하고 대담하게 (권력자의) 명령을 직시해야 하며 명령으로부터 가시를 제거하는 수단을 찾아야만 한다”는 카네티의 말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의 물음이 현재에도 유효한 때문도 있었지만 저자의 독특한 시각과 해박한 지식을 뒷받침하는 문학적 성과에 크게 힘입어 지 않았나 한다. 

양선희기자